



# (유)나성이엔티 · (주)나성이앤에스

문서번호	나성 - 경영지원 - 제8호	작 성	2025-09-17
수 신	군산상공회의소 김승주 팀장님	참 조	
제 목	군산상공회의소 110주년 기업 조사서		

## 1. 창립과정

실업계 기계공고를 졸업한 최은성 대표는 산업기계 분야의 일을 배워서 큰 꿈을 안고 중소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월급쟁이로는 비전이 없다고 느껴 하루빨리 자신의 사업을 통해 승부를 걸어보 고자 했다. 친척에게 6천만원을 빌려 시작한 사업은 2003. 11. 13 나성엔지니어링 1인 기업을 시작으로 주변 의 많은 도움을 받아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밤낮없이 하루 2시간정도만 자면서 일에 몰두한 결과 2011.12.15 유한회사 나성이엔티로 법인전환 하였으며, 기술인력지원을 위한 2019.09.25 주식회사 나성이앤 에스를 설립하였다.

## 2. 현재와 미래

체계적이고 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해 인증(벤처기업, ISO9001, ISO14001 등)을 취득하고 부 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조 및 정비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임직원 간의 소통을 통한 개선 및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 예로 특허받은 "버킷 엘리베이터의 버킷 및 체인 교체방법 (제 10-2022899 호)"는 열병합발전의 주요 설비 중의 하나인 버킷 엘리베이터의 안전한 교체방법에 대한 회사 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의 사례이다.

이러한 첨단 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최은성 대표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왔다. 나성이엔티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규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철저한 사전준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안전법규, 안전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책임을 다해왔다. 또 안전보건 가치관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소통을 활성화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 문화를 조성하며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지속해 개선 및 운영하고 있다.

안전과 더불어 중요한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설립 이래 대표의사의 평소 경영철학인 '협동적 노사관계' 실 천을 위한 노력으로 '노사분규 없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전사적으로 힘을 쏟고 있으며 2021년 노동조합의 설립과는 별개로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정기적인 노사협의회를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임 금인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갱신 등 지속적으로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 복지향상 등을 실천하며 건강한 노 사문화를 조성해 창업 20년의 기간동안 노사분규 없이 노사상생의 화합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 과로 그 결과를 인정받아 다수 기관 (전라북도지사 표창/2019, 군산시장 표창/2021 등) 의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더불어 평소 '직원이 있기에 회사가 있다'는 고용주의 경영철학과 같이 직원은 곧 기업의 경쟁력이며 국가의 경쟁력이기에 노사가 서로 지켜야할 원칙을 이해하고 상생의 지혜를 통해 지역 내 노사관계 모범사 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미래 지향적인 우수 노사문화 기업으로 가기 위한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최근 동종업체들이 줄어들고 합병하는 추세로 과거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로 전환되면서, 정비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마진이 줄어드는 구조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미세먼 지 등 환경 문제로 인해 노후 발전기 정지 및 환경설비 개선이 확대되고, 전기차·수소차 등 신기술 도입이 가



# (유)나성이앤티 · (주)나성이앤에스

문서번호	나성 - 경영지원 - 제8호	작 성	2025-09-17
수 신	군산상공회의소 김승주 팀장님	참 조	
제 목	군산상공회의소 110주년 기업 조사서		

속화되면서 기존 정비업의 일감이 줄고 있다. 이러한 경기 불황으로 기업마다 긴축 경영을 나르고 있지만 나성은 고용을 유지하고, 기존 기술자가 아닌 야구선수 출신들을 엔지니어로 육성하기 위해 투자에 나섰으며 그에 준하는 성과를 내었고 야구선수 출신 외에도 군산 지역 주요 기업에서 근무하다 명예퇴직, 정리해고, 회사부도 등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에게도 제2의 인생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인재 육성에도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공단 내 대기업 및 제조업체의 대형 설비(Fan, Conveyor 외)를 유지보수 및 정비(상시정비 및 정기정비)하여 거래처의 안정적인 운전에도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경제발전의 밑거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설립 당시 6명으로 시작하여 25년 9월 기준 정규직 직원 122명 (나성이앤티 41명, 나성이앤에스 81명)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기술개발과 고객신뢰를 바탕으로 군산시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업체 (SGC에너지, SGC그린파워, 삼양이노캠) 뿐만 아니라 타지역 업체 (김천에너지서비스, GS EPS)까지 기술인력지원과 발전설비 전문 제조 및 정비업체로서 "나성"은 나아가고 있다.